

도농복합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 요구도

김 정 옥(대구가톨릭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도농복합형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도농복합형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0명이다. 측정도구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서비스 기관 방문목적(7문항),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가족상담, 자녀지원, 자조모임의 7개영역별 만족도 및 요구도에 대해 5점 Likert식 설문 30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지 수집은 2011년 9월에서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 방식은 면접법 및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절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Chi-square, one-way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주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출신국적이 중국(52%), 베트남(36%), 캄보디아(9%)의 순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 75%였고, 결혼지속기간은 5년 미만이 73%였다. 월 평균 소득은 대상자의 70%가 월 200만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이용 목적은 취업정보(75%), 의료지원(73%), 종교활동(59%), 교육(48%), 아동양육(47%), 본국사람들과의 친교(45%), 상담(35%)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방문교육(M=4.27), 한국어교육(M=4.24), 다문화가족통합교육(M=4.15), 자조모임(M=4.06), 자녀지원(M=4.01), 취업연계(M=3.94), 가족상담(M=3.87)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도는 한국어교육(M=4.67), 방문교육(M=4.51), 취업연계(M=4.47), 가족상담(M=4.30), 다문화가족자조모임(M=4.29), 자녀지원(M=4.27), 다문화가족통합교육(M=4.27)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농복합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내용 구성의 차별화이다. 도농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가내수공업 규모의 영세한 공장이 많아 취업에 대한 기회나 요구가 많으나 현재 취업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는 컴퓨터교육이나 기업견학, 이미지메이킹 등의 취업연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므로 직업적성과 해당지역 취업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이다. 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와 가정생활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치지 않고 조기 취업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교육이나 부모역할교육 등 가족통합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므로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말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